

61st Exhibition  
Oct 27 - Nov 30, 2023

# L I M I N A L I T Y

Place  
Space B-E Gallery 4F

경 계

Artist  
Choi Jiyoung

최 지 영

## CHOI JIYOUNG

내 작업의 모든 인물들은 경계에 있다. 각자 자신의 경계에서 살아가며,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 표현한다. 나는 하나의 흉덩어리에 그들의 감정을 넣어 창조자 역할을 하며 형상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감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고는 한다. 2005년 프랑스에 거주했을 당시 이민자 2세들로 인한 3개월간의 큰 폭동이 있었다. 소외받고 차별받아 온 이민자 출신 청소년들의 울분은 억압에 짓눌리고 한계에 직면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성찰하게 해주었다. 당시 사건은 내게 억압된 감정과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한 사람들의 감정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내 감정과 이야기가 작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잠재된 나의 내면에는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순간... 달라지는 상대방의 시선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다. 그 달라진 시선은 내 본질과는 다른 편견의 시작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또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로 소모되고, 또 위로와 치유가 아닌 비난과 조롱 그리고 편견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본다. 그 이후 나와 비슷한 경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흙으로 만들게 되었고, 흙은 나의 정신적 치유물이 되었다.

“모든 시대의 예술에는 그 시대의 리얼리즘이 있다.” - 페르낭 레제 (Fernand Léger)

이번 전시에서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단어는 '경계'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4가지 장면은 경계의 여러 의미(Liminality, Segregation, Caution, Bound)를 내포한다. 나는 이 많은 경계 중 어디쯤 서 있는지 그 모호함의 질문을 반복한다.

Space B-E  
www.spacebe.co.kr

Instagram  
스페이스 비이 @spacebe\_official  
윤현핸즈 @younhyun\_hands\_store  
윤현상재 @younhyun\_official

Choi Jiyoung  
www.choijyoung.com

Instagram  
@choi\_ji\_young

- ① **경계인(境界人. Liminality)**의 인물들은 몸에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몸 중심의 다른 색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싶은, 말하는 순간 달라지는, 시선이 두려워서 감추어 둔 그들의 이야기이다.
- ② **경계(境界. Segregation)**에 복제되어 가운데 서 있는 인물들은 사회의 기준에 맞춰 모든 현상을 인식하고 순응하여 살아가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변화 혹은 다름을 두려워한다. 가장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 ③ **경계(警戒. Caution)**의 부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이는 프랑스 남부지역 양치기들의 관용어구로 '황혼이나 이른 새벽 멀리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계의 시간'을 일컫는다. 그러한 경계의 시간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와 관계를 표현한다.
- ④ **경계(經界. Bound)**는 옳고 그른 한계를 넘어 자기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이에게 폭행과 폭언 등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인물들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 FLOOR PLAN

